

우리센터, 무료 농산물 지원프로그램 ‘우리신선마트’ 개시

지난 8월 28일, 우리센터는 노리스타운에 위치한 샌디힐테라스 (Sandy Hill Terrace) 아파트에서 ‘우리신선마트’ (Woori Fresh Mart) 첫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신선마트는 신선한 야채나 과일 구매가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지역 농장의 농산물을 무료로 나누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우리센터 이현옥 사무국장은 “지난 4월 노스필라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언더워에 위치한 두표소까지 차량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장보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근처에 식품점이 있어도 가지 못한 다며 어르신들이 아쉬워하셨다”며 이번 프로그램 기획배경을 설명했다.

‘우리신선마트’는 균형잡힌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센터 측은 “이미 훌륭한 푸드뱅크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소설위커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모두 너무나 필요한 서비스라고 입을 모았다. 다행히 올해는 아시안 모자이크 펀드의 지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



우리센터의 ‘우리신선마트’ 무료 농산물 지원프로그램-우리센터 제공

하여 실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28일 샌디힐테라스 커뮤니티룸에서 진행된 이날 ‘마트’에는 100여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해, 노각, 대두, 백오이, 서리태, 오이지, 청고추, 홍고추, 깻잎 등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주민 이숙형 씨는 “좋은 생각 잘하셨고 정말 잘 오셨어요. 특히, 깻잎, 풋고추, 빨간고추가 상성한 게 너무 좋다”며 감사를 표했다.

우리센터 측은 오거니어지는 “평상 우리센터는 장보기가 쉽지 않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우리신선마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 ‘우리신선마트’는 필라메리타하우스 주민을 대상으로 9월에 진행한다. 이현옥 사무국장은 “작은 비영리단체로서 커뮤니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참여를 부탁했다. ‘우리신선마트’ 및 서비스 프로그램 문의는 우리센터 267-481-5153로 연락할 수 있다.